

# 공지영 소설 연구

- 후일담 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박은태\*\*

## 차 례

1. 서론
2. 후일담 소설이 묘사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우리’와 ‘나’
3. 후일담 소설 쓰기의 의미
4. 후일담 소설의 한계-후일담 소설의 주체와 관련하여
5. 새로운 주체와 연대의 발견-『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6. 결론

이 논문을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의 성격과 그 변모 양상을 연구한 글이다.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은 두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찬란한 80년대와 환멸의 90년대가 그것이다. 이런 낭만적인 인식은 80년대와 90년대 모두를 일정하게 왜곡하게 된다.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이 이렇게 낭만적 세계인식에 의해 오염되는 것은, 후일담 서사의 주체들이 명확한 자기 인식을 사회·역사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회적 분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는데, 이들은 이런 분화를 다만 변절과 배신으로 인식했을 따름이다. 90년대 후일담 소설에서는 공지영은 이런 인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그의 최근작인 『우리들

\* 이 논문은 부산대 학술지원금으로 만들어진 논문임.

\*\* 제1저자 박은태, 제2저자 고현철(부산대 교양교육원 강사)

의 행복한 시간』에 오면, 공지영은 후일담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공지영이 이 소설에서 80년대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와 연대 방식을 모색해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런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그 변모 과정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핵심어 : 후일담, 공지영, 1980년대, 1990년대

## 1. 서론

1980년대에 이르러 현실 참여 문학은 그 극점에 이르면서 운동의 문학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87 민주화 운동으로 현실변혁운동이 형식적이거나 승리를 거두고, 이후 일어나는 국내적·국제적 변화들은 문학의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소비에트와 동구권의 붕괴는 1980년대 변혁운동과 운동 문학의 이념적 기반을 무너뜨렸으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고도소비사회의 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컴퓨터와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이 정착되면서 새로운 사회 경험과 인간 관계를 만들어낸다.<sup>1)</sup>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문학의 성격과 작가들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실참여적 경향의 소설들이 급작스럽게 쇠하면서, 90년대 소설 지형은 일명 신세대 문학<sup>2)</sup>이라는 불리는 새로운 세대

1) “1987년 6월항쟁 마디의 획기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90년대적 전도(顛倒)의 한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도 이제는 주목해야 한다. 신군부의 변형된 재집권, 좌파의 몰락과 고도성장사회의 순항(順航)으로 상징되는 토오코오올림픽(1964)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한 88서울올림픽의 개최, 그리고 이어진 동구혁명으로, 6월항쟁 이후 새로이 열린 가능성의 공간은 거의 탕진되었던 것이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p.30.

2) 권성우는 신세대 문학 혹은 신세대 작가를 60년대 출생해서 90년대에 활동한 작가와 문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에 80년대와의 이념적 차별성을 지닌 소설과

들의 새로운 경향으로 채워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sup>3)</sup> ‘포스트’란 영어식 접두사가 붙은 새로운 이론들이 도입되면서 근대 서사의 대표 양식인 소설의 죽음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소설의 중심 영역은 사회적 문제에서 주체들의 내밀한 욕망과 내면 세계로 이동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현실의 침예한 문제들에 개입하면서 지식인으로 취급받던 소설가들은<sup>4)</sup> 1990년대 들어 단순한 문학적 이야기꾼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소설은 현실에서 점점 탈구되어 환상과 허구와 예술의 영역으로 스스로를 한정하였다.<sup>5)</sup>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문학사적 변화의 와중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재정립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후일담 소설<sup>6)</sup>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역사적 장르이다. 그런데 이런 후일담 소설 형식은 30년대 카프 해체기와 해방 공간에서도 전향의 합리화와 자기 반성의 형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당대의 후일담이 주로 상황의 변화-일제의 전시동원 체제와 해방-에 기인한 것이라면, 90년대의 후일담은 정치적 구조의 변화,

작가라고 하는 좀더 좁은 정의를 덧붙인다. 김남석, 『신세대:아직도 ‘신세대 문학’은 살아있다』,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6, pp.104~105.

3) 다음의 문장은 80년대 문학과 90년대 문학의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김남주가 죽고, 황지우가 폭삭 늙어버리고, 박노해가 개그맨이 되고, 백무산이 선을 하고, 이성복도 이젠 스스로 “아버지 아버지 씹새끼”가 되고, 금방 죽기라도 할 것 같았던 최승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지리멸렬한 속에서 내 속의 시적인 것도 함께 죽어버렸네.” 김명인, 『기형도에게』, 『자명한 것들과 결별』, 창비, 2004, p.413.

4) 김윤식, 『1960년대 문학의 특질-김승옥론』, 『김윤식 선집4-작가론』, 솔, 1996.

5) 이러한 90년대 문학의 변화 양상을 몇 가지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성에서 감성과 욕망으로, 거대서사에서 미시서사로, 지식인 작가에서 전업작가로, 그리고 63세대로 대표되는 신세대 작가의 등장, 매체에서 있어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 영상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시각 이미지의 점중, 주변적인 것(여성, 환경 등)들의 부상 등등...

6) 후일담이란 용어는 최재서가 일본 문학 경향에서 가져온 것인데, 90년대 일군의 문학을 정의하기 위해 김윤식이 다시 사용한 것이다. 최강민 외, 『좌담:90년대 문학을 결산한다』,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6, p.45.

새로운 문화적 환경의 조성, 새로운 작가들의 대량 유입에 의한 문단의 세대 교체, 문학 내적 역학 관계의 변화 등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1990년대에 생산된 후일담 소설들은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문학의 세대 교체와 출판 상업주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지원 등으로 90년대 문학-소설-이 신속하게 문단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90년대 나온 일련의 후일담 소설들은 문학사적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적, 형식적, 기능적인 면 모두에서 심각한 단절을 보이는 80년대 소설과 90년대 소설을 이어주는 문학사적 가교 역할을, 이 후일담 소설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일담 소설들은 기억의 방식으로 80년대를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변화된 90년대의 삶과 내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두 시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sup>8)</sup> 따라서 후일담 소설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소설들과 1990년대 소설 사이에 놓인 심각한 문학적 단절을 메우는 단초가 될 것이다. 더불어 1990년대 소설들의 한계와 그 극복의 몇몇 가능성들이 후일담 소설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후일담 소설 연구의 일환으로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지영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작가의 후일담이 보이는 양적인 풍부함과 동시에 공지영의 소설들이 차지

7) 90년대 신세대 소설과 출판자본과 문학 에콜들이 비교적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문단의 주도권을 잡아갔다. 최강민 외, 『좌담:90년대 문학을 결산한다』,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6, pp.63~66.

8) 김윤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식으로 후일담을 구분하고 있다. 심정의 차원, 정신의 차원, 혼의 차원이 그것이다. 김윤식, 『어쨌서 기행소설인가』, 『글쓰기의 모순에 빠진 작가들에게』, 강, 1996, pp.249~272.

하는 특이한 위치 때문이다. 공지영의 후일담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대중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후일담 소설의 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소설가였던 공지영은 당대의 비평적 대상에서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공지영의 소설들이 1990년대의 중심적 소설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는 점과 함께 그녀의 소설이 가진 대중성 때문이다.<sup>9)</sup> 그러나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과 여성 소설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소설들이 지속적으로 넓은 대중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어쩌면 1990년대의 신세대 소설들이 지닌 일련의 문학적 한계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닐까도 생각된다. 즉, 1990년대 소설에 부족한 소설의 인식적 측면과 사회적 문제 의식 말이다. 이는 공지영에 대한 연구가 간접적으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이후 새롭게 등장할 소설

---

9) 공지영의 소설들은 1990년대의 소설 경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물론 공지영이 적은 여성 소설들은 1990년대 소설의 중심 경향 중의 하나였지만, 작가의 여성 소설들은 많은 면에서 1990년대의 여성 소설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공지영이 적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1990년대 여성 소설의 출발점을 만들었지만, 비평적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물론 작가의 다른 여성 소설들보다는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공지영이 1990년대에 대중적 인기를 얻은 소설들의 한쪽에는 후일담이라 불리는 소설들이 놓여있다. 사랑을 매개 구조해서 1980년대의 삶과 기억을 서술하고 있는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은 대중적 인기와는 반대로 비평 쪽에서는 냉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평적 냉대의 한 부분에는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이 1990년대 소설 경향과 동떨어졌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많은 평자들은 공지영 소설들이 지닌 대중적 성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대중 소설과 본격 소설의 해체가 이론적으로 활성화된 시기가 1990년대였다는 점과 문학적 성격에 대한 규정이 당대의 문학 지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은, 공지영 소설의 대중성과 비평적 냉대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에 애매 모호한 지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공지영 소설의 비평적 냉대의 다른 한편에는 80년대 민중문학계열에서 보내는 불편한 시선이 놓여 있다. 바로 공지영이 80년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 말이다. 공지영의 소설은 그 화려한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비평적 위치에서는 양쪽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애매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경향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이 논문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다. 다만 이 논문의 결과가 그 방향으로 열려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의 성격과 그 전개 방향을 규명하는 데에 두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방향으로 이 논문의 일차적 목적이 연결되기 위해, 공지영의 최근작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분석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공지영 후일담들이 현재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면서, 1990년대 소설 경향과 주제들에 비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먼저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이 묘사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본질에 대해 분석하겠다. 그리고 공지영이 후일담을 적은 소설적 이유와 작가의 후일담이 가진 한계를 후일담 서사의 주제들과 연관지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지영이 자신의 후일담에서 제기한 문제의식들을 최근의 소설들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텍스트는 『인간에 대한 예의』(1994), 『더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1989), 『고등어』(1994),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5)을 중심으로 한다<sup>10)</sup>.

10) 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창작과비평사, 1996. 공지영, 『더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 풀빛, 1994. 공지영, 『고등어』, 푸른숲, 1999.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푸른숲, 2005. 이하 인용문에서는 책 제목과 인용 면수만 표기함.

## 2. 후일담 소설이 묘사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 ‘우리’와 ‘나’

『무엇을 할 것인가』의 다음 부분은 1980년대가 지닌 본질적인 얼굴의 하나를 잘 보여준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정화’는 ‘수천 명의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택했던 감옥의 길’(『무엇을 할 것인가』, p.101)을 가기 위해, 대학원을 그만두고 집을 나와 노동 현장으로 가고자 한다. 그녀는 노동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졌다고 자주 비판을 받는다. 이런 와중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난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회장이었고, 지금은 그녀들을 지도하는 선생이다. 그의 이름은 김정석이다. 그러나 가명이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또한 정화의 사랑에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얼굴을 버리고 ‘우리’라는 80년대의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 정화는 그의 본명을 묻는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그의 본명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의 본명을 묻는 것은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서였다.

-형,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아요. 단지 정말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나면 더 떼쓰지 않을게요.

-……김, 정, 석.

(중략)

-그렇게 상투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제 난 이름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동지로서의 이름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공지영, 『무엇을 할 것인가』, p.111)

‘정화’는 결국 자신이 가진 개인주의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

에서 도망쳐 나온다.

이 장면은 1980년대를 그 세대들이 어떤 얼굴로 살았는 지를 잘 보여 준다. 1980년대 혹은 1980년대의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가명쓰기>이다.<sup>11)</sup> 그들에게 가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80년대의 얼굴이자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덮어써야 했던 사회적 탈이었다. 가명을 통해 그들은 위선과 거짓의 역사에 의해 조정당하는 꼭두각시에서 참된 역사의 주체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의 진정한 자아는 그들의 본명이 아니라 가명 속에서 있었다. 그들은 가명을 통해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1980년대의 변혁 운동에 참여한 당시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구성은 다양했다. 그들의 부모에는 정치인·기업가·대지주도 있었으며, 도시 자영업자와 대기업 간부들의 딸들도 있었고, 빈농과 빈민과 노동자들의 아들들도 있었다. 그리고 성향으로 볼 때, 전체론을 꿈꾼 낭만적 여성도 있었고, 팝스를 읽은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아메리카드림을 믿었던 감상적 자유주의자들도 있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길은, 스스로가 지닌 출신 흔적, 바로 본명을 버리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가명쓰기의 본질이다.

다양한 본명을 지닌 느슨한 연대가 아니라, 이런 가명쓰기를 통해 하나의 단일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80년대가 저항이 아니라 전투의 시대였음을 말해준다. 광주의 피로 시작된 80년대는 민주주의가 전쟁임을 말해주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시민을 학살한 자들에게 윤리적 결단이나 민주주의적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기만이었고 환상이었다.

---

11) 김윤식은 이런 가명을 이데올로기로, 본명을 실존으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80년대는 본명이 아니라 가명 즉, 실존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된 시대라고 한다. 김윤식,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p.575~576.



때문에 80년대의 그들은 자신들이 대결하는 적들만큼 강해져야 했다. 군인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도 또 다른 군인이 되어야 했다. 80년 광주의 시민군은 바로 80년대 세대들의 본질이었다. 거리는 전장(戰場)이었고, 학원은 전시 사령부였다. 때문에 80년대의 세대들은 스스로의 본명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의 군인이 되기 위해 가명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때문에 이런 그들에게 사랑이란 하나의 사치처럼 여겨졌다.

한강변에 나가 강물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죄스러운 시절이었다. 왜냐하면 그 한강이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발원하여 홍천의 내리천을 지나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양수리에서 합쳐지고 양수리를 지나 팔당으로, 팔당을 지나 잠실과 여의도와 노랑진을 지나 서해로 이르기까지 그 물결에 스며들었을 민중들의 한과 땀과 눈물을 헤아려본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울 수만은 없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스물한두 살의 나이에, 강가에 나가서 강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조차 죄책감을 가졌던 세대가 또 있을까? 강물이 그런데 하물며 사랑이야.(『고동어』, p.178)

이렇듯 80년대의 세대들은 강물에서까지 민중의 피를 보았던 세대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끌려가고 죽어간 동료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들도 그들을 따라 감옥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 감옥 바깥에 있는 것이 더욱 괴로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80년대 세대들의 ‘우리’라는 공동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고,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 믿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스스로의 몸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다.

팔십년대의 아들이며 딸들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옳으면 승리한다, 아아, 너무도 단순했지만 너무도 굳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다.(『인간에 대한 예의』, p.93)

루카치의 언어로 말한다면, 80년대 세대들은 고전적 그리이스의 그 젊은 시민들이었다.<sup>12)</sup>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창공의 별(『꿈』, p.54), 새로운 역사를 향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아갔다.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하였고, 모험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80년대 세대들은 그들의 본명과 개인성을 버리며,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공지영의 후일담에 그려진 1980년대의 얼굴이다.

그런데 이런 1980년대와 그들 세대가 만들어낸 1990년대는 어떤 얼굴은 그들이 열망했던 이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1990년대는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형성된 87 체제가 국내적 변화와 세계사적 변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형성된다. 대표적인 국내적 변화는 88올림픽과 고도성장이었고, 세계사적 변화는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80년대의 그 세대적 공동체는 파괴되고, 한국사회는 급속히 후기자본주의적 체제로 변화한다. 이와 함께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가 80년대의 변혁이념을 대체한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의 변혁주체들은 후기자본주의의 소비대중으로 탈바꿈한다. 현실의 모순과 역사에 대한 열망 속에서 묻혀 있던 다른 얼굴 하나가 새로운 현실을 등에 업고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이성·우리’라는 80년대의 얼굴은 ‘소비·욕망·나’라는 90년대의 얼굴로 바뀐다.<sup>13)</sup>

12)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참고

13) 80년대의 ‘우리’에서 90년대의 ‘나’로의 변화를 최원식은 대설(大說)에서 소설(小說)로의 변화로 설명한다. 그는 90년대 문학을 ‘골방의 심리주의’ 문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p.18.

한 밤의 거리는 젊은이들로 왁자했다. 쇼윈도의 옷들은 화려하고 음악은 경쾌했다. 장신구를 파는 리어카 앞에는 발랄한 여대생들이 무더기로 몰려서서 달고 걸고 끼워보고 있었으며 한구석에서는 한 팔을 벽에다 짚은 젊은이가 토하고 있었다. 한때 그들은 이 거리를 쏘다녔다. 두부 한 모에 소주 한 병, 그도 아니면 애걸해서 서비스로 얻어낸 짬뽕 국물에 소주 한 병. 돈이 생기는 날은 잡탕찌개나 파전. 골목 하나 하나에 그들의 숨결이 묻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고 그들이 손가락을 걸어 결사를 맺었고 친구가 끌려간 날 그들이 별을 보며 눈물을 찼던 곳. 『고등어』, p.184)

거리는 저항의 장소에서 소비의 장소로, 공장은 희망과 역사의 공간에서 소비할 돈을 조달하는 공간으로, 학교는 저항의 전시본부에서 생존과 출세를 준비하는 취업자 양성소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역사와 희망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행운과 욕망에 관심을 가진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가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때에. 『인간에 대한 예의』, p.93)

공지영은 이런 1990년대의 변화를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이민자와 권오규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민자가 1990년대의 얼굴과 이상이라면, 권오규는 1980년대의 얼굴이자 이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권오규와 같은 삶에는 관심이 없다. 20년 이상을 감옥 생활의 영향으로 방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도, 동료 장기수들의 병간호를 하는 권오규의 삶에 90년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90년대의 사람들은, 남편의 바람기를 잡기 위해 더욱 만족스러운 섹스 채위에 관심을 두거나 연인이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좋은 과일 안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할 뿐이다(『인간에 대한 예의』, p.77). ‘우리’가 아니라 ‘나’

의 행복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쏠린다. 이민자는 바로 이런 90년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다.

스물하나의 나이로 대한민국 국전 대상, 대학 졸업 후 도미, 뉴욕에서 큰 성공, 이어 도블하여 전시회 연달아 성공, 소더비 경매장에서 그림을 거래시킬 수 있는 유일했던 한국화가…… 어느날 성공과 성취의 허망함을 깨닫고 인도로 여행을 떠남…… 스승 마가호타 미르혼지 밑에서 사사…… 삼년간 인도 전역 맨발로 방랑…… 아프리카 스케치 여행, 어느날 킬리만자로의 눈 덮힌 봉우리가 바라다보이는 한 사파리에서 야영중 불현듯 깨달은 바 있어 다시 돌아와 고국에 정착.(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p.61)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1990년대가 만든 ‘나’에는 ‘우리’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부각된 ‘나’는 사실, 1980년대가 만든 ‘우리’에 대한 반발의 측면이 강하다. 시대의 모든 풍경 속에서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바라보아야 했던 80년대 세대들에게 ‘나’의 개성과 욕망에 근거한 삶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1990년대의 ‘나’란 바로 1980년대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억압했던 하나의 얼굴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1990년대의 ‘나’가 1980년대의 ‘우리’를 전면 부정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1990년대가 만든 이 ‘나’들이 본질에서는 자본에 포섭된 ‘소비의 주체’라는 점이다.<sup>14)</sup> 공지영은 이런 1990년대의 현실을 <시궁창>으로 묘사하고 있다.

14) “예전에는 대자본까지 좌지우지하는 권력과 재야라고 통칭되던 견제 세력 간의 대결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자본과 견제 세력들 간의 대결이라는 거지요. 그 견제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각개로 격파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공지영, 『소설을 쓰고 싶은 T후배에게』, 『상처 없는 영혼』, 푸른숲, 1996. p.302.

정녕 이런 시궁창 같은 고통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꿈』, p.31)

공지영 소설에서 1990년대의 삶과 현실에 대한 묘사는 1980년대의 기억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가, 아름다운 과거와 추악한 현실이라는 이원적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그녀에게 자유로운 바다를 누비던 등 푸른 고등어의 시대가 80년대라면, 소금에 절여 시장의 좌판에 놓인 고등어의 시대가 1990년대이다. 그런데 이런 이원적 가치 대립은 전형적으로 낭만주의적인 구조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선명한 반면, 추악한 현실에 대한 시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추악한 현실이라도 그 현실의 모순을 파고들어가 그 속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싹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 1980년대의 정신이었다. 그런데 위대한 80년대를 회고하는 공지영의 소설이 낭만주의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현실을 대립시키고 동시에 감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과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강조될수록, 현실은 더욱 왜곡되면서 단순화되어 버리고 만다. 이런 낭만화의 양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현실 모두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980년대는 운동권 학생들이 만드는 희생과 순교의 드라마로 축소되고, 1990년대는 배반과 무기력에 휩싸인 환멸의 드라마로 단순화된다.

### 3. 후일담 소설 쓰기의 의미

1990년대는 1980년대가 만든 결과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것을 만든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낮은 것이었다. 『고등어』의 다음 구절은 이러한 역사의 결과를 본 1980년대 세대들의 정신적 혼란을 잘 보

여준다.

열 살 때였던가. 그의 집은 남쪽 바다의 J시로 이사했다. 해군 기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벚꽃이 유명한 소도시였다. 어느 날 봄별이 따스하다 싶자 갑자기 시가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면 나뭇가지마다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꽃을 보러 몰려든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도 아니면, 누군가가 밤 사이에 요술 지팡이를 가지마다 툭툭 두드려놓고 간 것처럼 꽃은 일제히 피어났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린 것이었다. 텅 빈 거리에 눈처럼 하얀 꽃이파리만 퍼붓고는 나무란 나무에는 꽃잎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필 때처럼 그렇게 일제히, 밤새 그 거리에 등을 돌리고 떠난버린 사람들의 싸늘한 마음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마녀가 가지마다 황폐의 마법을 걸어놓은 것인지 이상한 적요가 도시를 덮었다. 거리로 나가보면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듯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중략) 터져버린 풍선의 잔해와 꺾여진 솜사탕 막대기와 하수도 구멍 어귀에 말라 비틀어진 꽃이파리들 무더기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고등어』, pp.161~162)

1990년대를 맞이한 1980년대의 세대들에게 역사는 이성의 간지가 아니라 마법사가 펼치는 장난으로 인식되다 해도 과장을 아닐 것이다. 그들은 그 혼한 운전면허 하나 따지 못하고 보낸 자신들의 젊은 시절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운전면허야 다시 따면 되지만, 감옥에 가고, 고문으로 미치고, 생명마저 불살랐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들의 피와 생명과 시간으로 만든 현실에서 그들은 소외되고 잊혀져가게 된다. 살아남은 자들은 교수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일상인이 되었다. 80년대는 동창회의 술 안주가 되거나, 역사의 기록 속으로 잠겨 버린다. 불과 몇 년 사이에 80

년대는 전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겨우 삼십 년을 살고 나서, 과거가 그래도 아름다웠다고 추억하는 세대’(『고등어』, p.206)가 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런데 1980년대를 이제는 지나간 그래서 화려한 과거의 무용담으로 여겨도 되는 것일까? 여전히 1980년대를 치열하게 살다 상처를 입고 쓰러진 존재들이 우리 옆에 있는 데도, 우리가 그 80년대를 쉽게 잊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때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이가 우리의 동생이었고, 고문으로 정신이상자가 되어 남은 사람이 우리의 오빠이고, 감옥에서 나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그들은 우리가 존경하던 선배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을 따름이다. 공지영의 후일담 쓰기는 바로 이들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식이다.

가끔 앨범을 펼쳐놓고, 나는 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 그 앨범 속의 한 시절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이 지상에 없는 친구들의 수를 가만히 세어보기도 했다. 성당의 주일교사 일을 같이 하다가 대학 일학년 엠티에서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고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었던 친구,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동기, 어두운 심야극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선배…… 한 친구는 자취방에서 목을 매었고 또 한 후배는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또 한 친구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아파트 십층에서 뛰어내렸고 또 한 선배는 새벽까지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 그대로 죽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남학생이 있었다. (중략)

(중략) 그들은 우리들의 이십대가 고스란히 놓이 1980년대, 내가 죽고만 싶어, 죽고만 싶어, 하고 중얼거리며 죽지 못하고 빠져나온 1980년대의 한 길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다리다가 고꾸라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이었다. 고꾸라진 그들을 두고 나 혼자 달려나와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버렸다는 생각, 그래서 어두운 곳만 보면 혹시 여기에 그들의 주검

이 파랗게 누워 있는 건 아닐까 겁이 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인간에 대한 예의』, pp.70~71)

그런데 술자리에서조차 운동권 가요를 부르지도 않는 이때(『인간에 대한 예의』, p.93)에, 누가 이들을 기억해줄까. 같은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이제 사라진 공룡시대의 맘모스일 뿐인데 말이다. 공지영에게 후일담 쓰기는 살아남은 자들이 서 있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과 시간을 모두 바쳤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잊혀져 가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지영의 후일담 쓰기란 다만 이런 종류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공지영은 그럴 듯한 후일담 소설 하나만 적어도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동안 공지영은 여러 후일담 소설들을 적었다. 그것은 후일담 쓰기가 공지영에게는 80년대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인 동시에 90년대를 돌파하기 위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공지영에게는 1990년대는 환멸의 시기였다. 이념과 이성과 역사의 시대가 이런 소비와 욕망과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냈는가를, 공지영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등이 푸른 고등어의 자유를 꿈꾸었던 그때의 ‘우리’들이 자본이 만든 좌판에서 삶을 조정 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공지영은 역사가 만든 이 혼돈과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일담을 적은 것이다. 물론 위대한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1990년대가 지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주체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가 지나온 1980년대의 삶과 기록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지도 모른다고 여겼을 것이다.



표지판 위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매끄러운 표지가 아니라 진짜 길, 울퉁불퉁하고 가파르고 험거운 진짜 길을, 내가 걷기 전에 이미 그 길이 살육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길 아닌 곳으로 도망치지 말고, 타박타박이라도 걸어서 넘어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진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표지판은 더이상 악몽이 아니라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의 지도가 될 테니까 말이다. (『꿈』, pp.56~57)

이런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 공지영은 후일담을 적었다. 아니 후일담을 통해 우회했다. 왜냐하면 후일담을 적던 90년대의 공지영에게 자신의 앞에 서있는 현실은 너무 낯설었던 반면, 그녀가 지나온 80년대는 여전히 모범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지영은 후일담을 적었고 그 후일담 속에서 1980년대의 삶이 썩고 문드러져서 새로운 거름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공지영의 의도와는 달리 후일담은 1990년대의 현실을 외면하는 구실로 작용한다.

공지영의 후일담은 위대한 과거와 영웅들을 추억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는 그의 후일담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묘사한 1980년대는 거의가 운동권 내부의 기억에 한정되어 있을 뿐, 80년대에 대한 객관적 조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80년대의 사회변혁 운동에서 학생들이 주된 동력이 되었다고 하지만, 80년대 사회변혁운동은 학생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 광범위한 사회 운동에 인적 자원이 되어 이들 운동과 결합되었다. 그런데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에서 회고되는 80년대는 대부분이 운동권 내부의 경험 영역에 갇혀 있다. 따라서 80년대 변혁 운동이 어디서 왜곡되고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90년대를 뚫고 나아갈 변혁운동의 자산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반성과 분석이 공지영의 후일담에는 부재한다. 이념의 표지판에서 현실을 재단하던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1980년

대의 한계와 1990년대의 구체적인 현실을, 공지영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응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지영의 후일담은 위대한 과거와 환멸의 현재만을 대비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 모두가 낭만적으로 단순화되어 버린다. 그러나 공지영 후일담이 보이는 이러한 한계는 공지영 개인의 것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일담이 만들어진 시기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때문에 후일담을 통한 현실의 지도 그리기라는 기억의 표지판에서 현실에 대한 환멸만을 토로하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공지영의 후일담 적기는 나름의 진지하고 의미있는 작업이었음은 분명하다.

#### 4. 후일담 소설의 한계 - 후일담 소설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지영의 등단작인 「동트는 새벽」에는 대학생 출신으로 노동 현장에 들어간 여대생(「정화」)과 여성 노동자(「순영」)가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와 진압과 구금의 과정에서 끈끈한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이 나온다.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묶을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대립 전선을 형성하는 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적이 존재하는 한 이에 대항하는 집단 내부의 차이는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트는 새벽」에 나오는 이 순진한 연대는 불안했지만 견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에 대항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믿지 않는다면 싸울 수 없었고 따라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믿어야 했다.

들은 자리에 누운 채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라, 승리하리라  
 해방되는 날, 통일되는 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동지여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

(『동트는 새벽』, 『인간에 대한 예의』, p.314)

그러나 『동트는 새벽』에서 묘사된 이런 여대생과 여성 노동자의 순진한 연대는 곧 무너지고 만다. 『동트는 새벽』의 여대생인 ‘정화’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정화’처럼 학교로 돌아가 대학원생이 되거나, 『인간의 예의』의 ‘나’처럼 작은 아버지의 잡지사에 들어가 기자가 된다. 이들의 이런 귀환을 보고 『동트는 새벽』의 ‘순영’과 같은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들은 떠나면 그만이겠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언젠든 돌아가 타협할 곳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겐 처음부터 돌아갈 곳이 없었어. 이 곳이 우리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야.”

지난 가을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는 인텔리 출신 운동가들을 보며 노동자가 그에게 말했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자리에서 무슨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변명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도 서울로 돌아왔다.

(『무거운 가방』, p.159)

공지영의 후일담들은 이런 80년대 세대들의 변화를 배반과 변절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80년대 세대들의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80년대의 ‘우리’를 구성했던 주체들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어』에 묘사된 다음 구절은 80년대 세대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응. 그의 친구 앵겔스도 말이야. 도무지 쓸데없는 짓을 했잖아. 자신들이 노동자도 아니면서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지를 연구하다니. 그런 점이 나랑 통할 것만 같았던 거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고민하는 게 맘에 들었던 말이야. (중략) 우리 선배들 역시 그랬지. 선배들의 삶은 오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닮아 있었어. 왜 <미션>이라는 영화 본 적 있지? 폭포를 기어올라가서 죽음을 당해서는 폭포로 떠내려오고, 그 친구의 시체를 묻은 신부가 또 그 절벽을 오르고…… 그 사람들이 믿은 건 뭐였을까. 대체 뭘 믿고 저토록 무모하기까지 한 걸까. 신부들에게는 하느님 아버지가 약속한 천국이 있었지만 우리에게겐 어떤 아버지도 없었는데…… 있었다면 가난과 고문과 투옥일 뿐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날 끝이었어…… 모르겠어. 난 원래 선배들 지적대로 늘 비과학적이었지만 날 때로 시킨 건 그런 거였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하고 지내다보니까 자유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말만 들어도 괜히 눈물이 핑 돌구 말이야.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토록 이타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는 거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란게 참 대단한 거구나 하는 생각. 그것고 참 비과학적인 거지만…… 난, 그런 생각에 감동받았던 거 같애. 그리고 오빠가…….”(『고등어』, pp.123~124)

이 인용문에서 공지영은 자신이 묘사하는 80년대 세대들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의 세대들은, 『고등어』의 ‘은림’의 말처럼, 낭만화된 맑스와 앵겔스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계급을 뛰어넘어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주장했던 맑스와 앵겔스의 일종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의 자녀, 잡지사 사장의 조카, 운수회사 사장의 아들 등 사회적 지배 계급이나 그에 준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때론 진짜 노동자와 빈민 계층의 자식들도 있었다. 그런 다종다기한 사회 계급의 출신들이 하나가 된 것이 80년대의 ‘우리’들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전 사회적 위치를 버리고 사회 투쟁의 현장으로 가는 모습은, 위의 인용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전도를 위해 미

지의 세계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순교자의 모습이었다. 이처럼 80년대 세대들은, 사회과학의 세례를 받은 이성적인 이념의 전사들인 것 같지만, 실지로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열정에 휩싸인 세대였다. 이념이란 이런 도덕성 혹은 윤리성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한 측면이 크다. 즉, 80년대 운동의 동력은 바로 이런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었던 것이다. 『더이상 아름다움 방향은 없다』에서는 80년대 학생 운동권의 이런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학생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그리고 계급적 자기 이해와 정립의 과정이라기 보다는, 현실의 폭력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목사를 꿈꾸던 청년과 광주 학살에 가담한 자의 딸과 몰락한 중소기업가의 아들과 집안을 일으킬 희망을 잃어진 사범 준비생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정의에 대한 종교적이면서 윤리적인 열정이었다. 이런 열정이 그들을 야학으로, 공장으로, 거리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세대들이 가진 이런 아름다운 연대와 실천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 세대 공동체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 80년대 세대들을 묶었던 사회적 아우라와 현실이 일정한 수준에서 해소되자, 이들의 연대도 해소되어버리고 만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87 민주화 운동이 형식적이거나 일정한 현실적 결과를 맺고, 한국 사회가 새로운 자본주의적 질서로 재편되자<sup>15)</sup> 『더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의 청년들은 부모의 열망을 위해, 개인적 행복과 꿈을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사회적

15) “1987년 6월항쟁 마디의 획기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90년대적 전도(顛倒)의 한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도 이제는 주목해야 한다. 신군부의 변형된 재집권, 좌파의 몰락과 고도성장사회의 순항(順航)으로 상징되는 토오코오올림픽(1964)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한 88서울올림픽의 개최, 그리고 이어진 동구혁명으로, 6월항쟁 이후 새로이 열린 가능성의 공간은 거의 탕진되었던 것이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 앞의 책, p.30.

위치와 이념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졌던 그들의 연대는, 거대한 사회적 약의 현존에 기반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형식적인 수준이었지만 그들의 연대가 싸웠던 목적이 달성되자, 이 공동체는 느슨해지면서 급속히 해체된다. 이제 그때의 ‘우리’들은 생활 현실로 돌아가 삶과 각개 전투를 벌이게 된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운수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기도 하고, 고시 준비를 해서 사법 연수원에 가기도 하고, 작은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잡지사에서 가계부를 만들기도 하고, 학생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논문을 적어 교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컴퓨터 가게를 차린 사람도 있고, 우유 배달점을 열기도 하고, 때론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가 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그들이 위장취업을 하여 싸웠던 약덕 기업가의 자서전을 적는 자서전 대필 작가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런데 80년대 세대들의 이러한 귀환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념이라는 탈을 쓰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지만, 영원히 이념과 가면 아래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가명의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훈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으로 남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새겼지만, 그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온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원래 위치임을 알게 된다.

손가락들은 곧게 뻗어 있었다. 흰 손이었고 게다가 노동의 흔적인 옹이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한때 그는 용접공으로 근무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다만 한때였을 뿐이므로 손은 다시 예전의 원형을 회복하여 바야흐로 게으른 자의 표상처럼 그저 길쭉할 뿐이었다.(『고등어』, p.170)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모든 80년대 세대들이 노동자와 빈민 계층의 자녀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당시 인텔리로 불리던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빈민 계층이나 노동자 계급들과 맺는 결합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은 80년대의 세대들의 90년대로의 전환을 단지 변절과 배신으로 보는 후일담 소설들의 서술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순진한 것임을 보여준다. 80년대 세대들이 원래의 실존적 본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었다. 그곳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출발지요 그리고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일담 소설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80년대 세대들의 이런 필연적인 분화를 후일담들이 배신과 변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크게 보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80년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90년대를 승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두 이유에 기인하여 90년대 후일담 소설들은 80년대 세대들의 분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배반과 변절이라는 주관적 인식에 귀속시키고 있다. 물론 공지영의 후일담은 전자인 80년대에 밀착된 입장에서 이런 80년대 세대들의 분화를 변절과 배신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공지영 역시 80년대의 분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90년대를 합리화시키는 후일담의 인식을 공유해버린 결과를 빚고 만다.

80년대 세대들의 분화는 당연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분화의 바탕에서 80년대의 변혁운동은 새로운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런데 후일담 소설들은 이 분화를 운동의 괴멸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90년대 신세대 소설들 역시 이런 인식을 공유했다. 그런데 80년대의 사회운동은 사회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90년대로 오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면서 발전하였다. 환경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운동의 영역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80년대 사회 운동의 한 바탕이 된 진보 이념은 진보정당의 형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문제는 90년대의 이런 운동들이 80년대와 같은 통합적인 연대와 실천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운동

의 후퇴는 아니었다.

이렇게 90년대는 80년대의 운동이 괴멸된 시대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분화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은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 5. 새로운 주체와 연대의 발견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로 오면서 공지영은 비로소 기억과 환멸의 이분법을 넘어 현실 속으로 들어서는 듯하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5년)은 후일담을 넘어 현재담으로 나아가는 공지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지영은 90년대에 후일담 소설만을 적은 것은 아니다. 공지영은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 소설들도 많이 적었다. 공지영이 적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90년대 페미니즘 소설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sup>16)</sup> 그런데 90년대 공지영 소설의 이 두 경향은 서로 별개로 진행된 느낌이 강하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오면 이 두 경향의 소설들이 지닌 문제 의식이 결합되는 느낌이 든다.

이 소설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여교수와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범죄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살인사건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의 만남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각성과 영혼의 교감

16) 공지영의 여성 소설에 대한 연구에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김현실, 『혼자』 서서, ‘함께’ 가기-공지영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국문학연구회, 한길사, 2000. 정영자, 『공지영 소설 연구』,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2002. 김영미, 『아직 끝나지 않은 희망의 잔치-공지영론』, 『전환기 소설의 지형』, 황국명 편저, 세종출판사, 2001. 백지연, 『대중문화와 페미니즘-공지영의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착한여자』,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비평사, 2001.



을 다루고 있다. 두 인물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여교수인 문유정의 아버지는 사업가이고, 그의 형제들은 검사와 의사와 대학교수이다. 이에 반해 사형수 정윤수의 아버지는 거의 미쳐버린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매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다. 그리고 동생인 '은수'마저 어린 시절 눈이 멀고 만다. 문유정과 정윤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극에 위치한 인물들이라 보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좀 과장된 사회적 차이와 이 차이를 넘어 두 인물이 맺는 사랑에 가까운 감정적 결합은, 상당히 선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선정성은 이 소설의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문유정과 정윤수의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 차이는 두 인물을 사회적 타자로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그들이 이루는 사랑에 가까운 감정적 결합은 이 타자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와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라 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사형수 정윤수와 여교수 문유정에게 상대의 세계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였다. 즉 살아가면서 서로가 한번도 넘어갈 수 없는 세계, 때 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각자의 세계는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육개월 동안 영치금이 한 푼도 없거나 천 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사는 구치소-교도소-의 세계를 문유정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애인의 수술비 3백만원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 정윤수에게, 해마다 파리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일급 호텔만을 찾는 사람들의 삶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였다. 하나가 너무 어두워서 존재하는 지를 모르는 세계라면, 하나는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도 없는 세계인 것이다. 너무 밝은 것과 너무 어두운 곳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 할 수 있다.

문유정과 정윤수의 철저하게 단절된 이런 세계를 공지영은 1990년대의 삶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1980년대는 이런 소외

되고 결핍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면서 그들과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던 존재들이 순교자처럼 이 세계 속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결합된 세계는 분리되고 만다. 풍요가 넘쳐나는 세계에 선 자들은 더 이상 빈곤에 빠진 세계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상호 외면 속에서, 이 두 세계는 분열되고 단절되면서 소통을 멈추고 만다. 따라서 공지영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 문유정과 정윤수를 만나게 하고 상호 이해에 이르게 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1990년대에 대한 비판이면서, 그가 후일담 소설에서 기억시키면서 보존시킨 그 낭만적인 80년대를 현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이 공지영 후일담의 현재적-현실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의 계급적 초월의 낭만적 연대를, 차이를 가진 연대성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유정은 정윤수를 통해 어둠 속에 깃든 빛을 본다. 그리고 정윤수는 문유정을 통해 빛이 숨긴 어둠을 본다.

그를 만난 후 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를 만난 후 나는 내 어둠 속을 헤치고 죽음처럼 숨 쉬고 있던 그 어둠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들, 지독한 어둠인 줄 알았는데 실은 너무 눈부신 빛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게 어둠이 아니라 너무도 밝은 빛이어서 멀어버린 것은 오히려 내 눈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으리라.(『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p.10)

대학도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멋있는 나라 프랑스에 유학도 갔다 오고 화가이고 교수이고 집이 부자인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p.210)

빛 속의 어둠, 어둠 속의 빛처럼, 이 소설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관계를 전도시킨다. 살인을 해 사형수가 된 정윤수는 그가 살해한 피해자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이다. 그리고 살인자를 처형하는 사형은 사회적 살인이면서, 본질에서는 하나의 복수이다. 교화를 행하는 사람이 교화 대상자에게 교화를 받는다. 교도소는 범법자를 교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하는 장소이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교도소는 범법자들의 자기 각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도원이기도 하다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지영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에서 행하는 이런 방식의 해체는, 90년대 우리사회에 유행된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적인 해체와도 다르다. 공지영의 이런 해체들은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90년대식의 상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해체에 대한 전복이자 비판의 요소가 강하다. 직접적인 언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는 90년대와 90년대 소설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유정아…… 고모는…… 위선자들 싫어하지 않아.”

뜻밖의 말이었다.

“목사나 신부나 수녀나 스님이나 선생이나 아무튼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위선자들 참 많아. 어찌면 내가 그 대표적 인물일지도 모르지…… 위선을 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선한 게 뭔지 감은 잡고 있는 거야. (중략) 고모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위악을 떠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서 실은 자기네들이 실은 어느 정도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위악을 떠는 순간에도 남들이 실은 자기들의 속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래. 그 사람들은 실은 위선자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가엾어…….”

(중략)

“그리고 고모가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 기준

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략)”(『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 pp.158~159)

낭만적 열정에 휩싸여 기층 민중과 억압받는 노동자가 되고자 했던 1980년대의 삶이 위선에 가깝다면, 이런 1980년대식 삶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등장한 1990년대의 삶과 문학은 위악적인 포즈에 가깝다. 사실 1990년대에 부각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상대주의적 시각이 조롱의 시선을 보냈던 곳에는 1980년대의 이성과 역사에 대한 열정이 놓여 있음도 사실이다. 소설의 전반부에 보이는 문유정의 삶의 방식은 이런 1990년대의 문화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위악적 행동, 상대주의적 개인주의, 진부함에 대한 분노, 쿨(cool)한 인간 관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1990년대식 몸짓이란 사실, 소통이 단절된 개인들이 세계로부터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 성격<sup>17)</sup>의 것들이었음을 문유정은 정윤수 등과 같은 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다.

나는 내가 소위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한 이별들을 했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사실들에 계속해서 상처입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 p.202)

공지영이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타자와의 만남은 1990년대를 휩쓸었던 포스트식의 담론들이 강조한 타자의 발견과는 상당히 다르다. 사실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타자들과 타자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런데 1990년대는 타자성을 인정받고 주장하고 드러내는

17) 백지연, 『허무주의와 싸우는 문학』,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2001, p.41.

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타자들이 서로 고립되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타자와 타자들이 맺는 연대에 진지한 관심이 없는 타자의 발견이란 고립과 소외를 결과할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의 타자의 발견이 소외와 고립을 가져온 것에는 1980년대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발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1990년대의 타자에 대한 논의는 동일성의 폭력을 피하려다가 차이의 폭력, 소통의 차단과 타자들의 고립을 가져왔다. 때문에 공지영은 이 소설에서 타자들 간의 연대에 관심을 쏟는다. 공지영은 이러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의 운명 혹은 상처에서 찾는다. 그는 이 상처의 발견과 이해를 통해 타자들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가 떠난 후 칠 년 동안 다른 많은 운수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순진한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재판관이나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더 큰 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가없고 똑같이 삶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것이다. 어떤 인간도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고, 어떤 인간도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기에 우리는 늘 괴로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을 말이다. 다만 본질적으로 한 가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죽음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끊어버릴 수 없는 인간 공통의 처연한 연대의식이었다.(『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 pp.300~301)

공지영이 이 부분에서 말하는 ‘인간 공통의 처연한 연대의식’에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본질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주제인 사형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공통의 처연한 연대의식’을 공지영의 소설이 앞으로 묘사할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보는 것에는 일정한 유보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종교적으로 경도

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지영이 이 ‘인간 공통의 처연한 연대 의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타자들간의 연대의 핵심일 것이다. 그것은 타자들이 다른 존재들과 만나서 맺는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소통과 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의 공유와 이해이다. 즉, 상처를 가진 자들이 상처를 통해 이루는 연대말이다.

그리고 이런 상처를 통한 연대가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공지영이 자신의 후일담 소설이 노정한 한계를 넘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공지영의 90년대 후일담 소설들은 그녀가 여전히 80년대에 많이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공지영은 90년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공지영의 소설이 묘사하는 90년대는 한마디로 한다면 <시공창>같은 현실이다. 그런데 공지영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 1980년대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면서 1990년대가 만든 현실 속으로 들어가하고자 한다.

1980년대의 한계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식으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지 못한 존재가 상대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자선이지 사랑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자선의 행위는 진정한 소통과 연대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영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 있다. 자선을 통해 그 연대는 일시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지만,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공지영은, 1980년대의 연대가 1990년대에 괴멸되는 과정을 통해 알았던 것이다. 노동자와 기층민중의 삶 속으로 나아갔던 대부분의 학생운동권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 현실이었다. 공지영의 후일담들은 이를 변절과 배신의 과정 이상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들의 회귀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 회귀된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차이를 지닌 타자들이 서로가 지닌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 속에 깃든 상처와 그 상처를 묶는 공통적 삶의 현실 혹은 운명을 찾아내는 것 즉, 여교수 문유

정과 사형수 정윤수가 이루어내는 ‘인간 공통의 처연한 연대’ 말이다.

그런데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것을 묶는 동일성을 재확인하는 이런 연대는 올바른 주체의 형성에 기반할 때에만 확고할 수가 있다. 사형수 정윤수가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발견한 오레스테스의 이야기는 이런 연대를 형성하는 주체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보여준다.

오레스테스의 집안은 할아버지의 잘못된 교만 때문에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오레스테스의 아버지 아가멤논은 그의 아내에게 살해를 당한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자에 대해 복수해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다. 그래서 오레스테스는 어머니를 죽인다. 그런데 복수의 여신이 가장 나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모를 죽인 자식이었다. 오레스테스는 복수의 여신이 내린 저주의 소리 때문에 미쳐서 세상을 떠돌게 된다. 이런 오레스테스의 비참한 운명을 본 아폴로는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오레스테스를 변명해준다. 어머니의 살해는 오레스테스의 잘못이 아니라, 신들의 저주와 이를 부른 그의 할아버지의 잘못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오레스테스는 말한다. 내 어머니를 죽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그리고 정윤수도 말한다.

“그 시간을 기억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꼭 영화에 출연한 나를 보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인질극을 벌일 때도 잡혔을 때도 그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실은, 그때도 나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제야 나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였다는 걸!”(『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p.212)

소설의 문유정은 말한다. 사형수 정윤수 또한 우리 사회가 만든 피해

자의 하나라고 말이다. 그런데 소설의 정윤수는 다시 말한다.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이라고 말이다. 언뜻 모순되는 이 두 주장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핵심이다. 상황과 운명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행동도 결국은 ‘나’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상황과 운명에 모든 책임을 덧씌운다면, 인간은 다만 주체가 아니라 상황과 운명에 종속된 객체가 되고 만다. 그런데 객체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바꾸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만든 운명과 상황에 종속되고 만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갇힌 운명과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주체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연대할 때, 그들을 둘러싼 상황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공지영은 이 소설을 통해 후일담 소설에서 낭만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계속적으로 동경의 시선을 던진 80년대의 그 ‘우리’를 넘어선다. 이 넘어섬을 통해 그는 비로소 현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에서 사형 문제는 공지영 소설의 새로운 시작의 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 6. 결론

이상으로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이 지닌 특성과 한계 그리고 그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은 위대한 1980년대와 환멸의 1990년대라는 낭만주의적 이원 구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에 대한 이런 낭만적 이분법 때문에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모두 현실의 구체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화되어 버린다. 그의 소설에서 1980년대는 학생 운동권의 경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990년대 현



실에 대한 묘사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감상적으로 요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던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후일담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사회·역사적 위치와 성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공지영의 후일담 소설들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역사적 연속성을 상실한 대립의 시대로 머물고 만다.

그런데 최근작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오면, 공지영은 후일담적 세계 인식의 한계에서 일정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공지영이 1980년대식 연대 의식에서 벗어나, 삶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지영이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의 연대는,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타자성을 넘어 동일한 운명과 상처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타자들 간의 연대를 말한다. 공지영은 이를 사랑이라고 한다. 1980년대식의 자기 계급을 초월한 자선에 가까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처를 공유하는 사랑의 연대 말이다. 이런 새로운 연대는 공지영 소설을 보다 현실에 밀착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공지영이 최근작에서 묘사하는 차이와 상처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사랑의 연대에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다룬 문제가 사형 제도라는 인간 생명의 문제였던 만큼 선부른 판단은 이를 것 같다. 그러나 일정한 소설적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중한 판단은 새롭게 나올 작가의 소설들과 기존 소설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

- 공지영, 『고등어』, 푸른숲, 1999.
- \_\_\_\_\_, 『더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 풀빛, 1994.
- \_\_\_\_\_, 『인간에 대한 예의』, 창작과비평사, 1996.
- \_\_\_\_\_,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푸른숲, 2005.
- \_\_\_\_\_, 『성처없는 영혼』, 푸른숲, 1997.
- 작가와비평편,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6.
- 김명인, 『기형도에게』, 『자명한 것들과 결별』, 창비, 2004.
- 김윤식, 『1960년대 문학의 특질-김승옥론』, 『김윤식 선집4-작가론』, 숲, 1996.
- \_\_\_\_\_, 『어쨌서 기형소설인가』, 『글쓰기의 모순에 빠진 작가들에게』, 강, 1996.
- \_\_\_\_\_,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김현실, 『‘혼자’ 서서, ‘함께’ 가기-공지영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국 문학연구회, 한길사, 2000.
- 백지연,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비평사, 2001.
- 서영인, 『충돌하는 자아들의 심층』, 창비, 2005.
- 정영자,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2002.
- 조남현, 『1990년대 문학의 풍경』, 『1990년대 문학의 담론』, 문예출판사, 1998, p.15.
- 최원식, 『문학의 귀환』,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p.18.
- 황국명, 『전환기 소설의 지형』, 세종출판사, 2001.

## Abstract

## A Study on "Hu Il Dam" of Gong, Ji-Young

Park, Eun-Tae

This paper is for the charactics of Gong's "Hu Il Dam"("Hu Il Dam" means a story related to certain subsequent events) and the process to get over the Gong's immutire style of it". Gong is one of the novelists who makes it. The reasons she write the stories are that she wants both to presever 1980's and and to make the practical conerstone for passing the disgusting 1980's. However, Her romantic diagram of "Hu Il Dam" makes it impossible to preseve the past and analyze the present. The romantic recognition of the world distort both the past and the present. In *our beautiful time*, she frees herself from the romantic diagram which characterize her novels, "Hu Il Dam". The key point in her novels is "solidarity through difference". The "solidarity through difference" for Gong comes to an moment to link between 1980's and 1990's as dialetic. The branch of Gong's new practic is in germination. It is, however, certain that through *our beautiful time*, she escapes a swamp of "Hu Il Dam".

**Key words** : Gong, Ji-Young, Hu Il Dam, 1980's, 1990's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